'평생교육 기회 제공' 충남 4개 시·군 시민대학 운영

송고시간 2020-09-04 15:22



이은파 기자



충남 시민대학 개교
[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(홍성=연합뉴스) 이은파 기자 = 이달부터 충남 4개 시·군에서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시민대학이 운영된다.

4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전날 공주시·논산시·당진시·부여군과 '시민대학 개교 및 시범운영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.

전국 9개 도 중 시민대학을 운영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.

4개 시·군 시민대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으로 나눠 민주시민 교육 등 인문교양 분야 3~4개 프로그램을 개설, 운영한다.

도는 앞으로 시민대학을 전체 시·군으로 확대하고, 교육 프로그램도 인문교양 중심에서 문화예술·직업능력·학력보완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.

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은 "시민대학이 도민 평생학습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"고 말했다.

sw21@yna.co.kr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0/09/04 15:22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